

# 신짜오 니우스

이달의 날씨 : ☀️ × 23 ☁️ × 1 🌧️ × 2 평균기온 : 30°C 평균습도 : 60%

## 길 헤매는 아띠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숨이 턱 하고 막힌다. 말로만 듣던 베트남의 더위와 습도를 견디며 코디네이터를 찾으러 공항 밖으로 나선다. 거리를 뒤편은 오토바이 소음과 매연이 우리를 반기고, 무질서한 시간 속에 식은땀이 흐른다. 3월 7일 현지시간 오후 6시. 이것이 우리 5명과 베트남의 첫 만남이다.

‘누구를 위한 행동인가’, ‘무엇을 하려 하는가’ 라는 면접 질문에 결국 답을 구하지 못한 채 바다를 건넌다. 아직은 자원활동가도, 자원봉사자도 멀기만 하다. 베트남 팀 5명은 왜 5개월 동안 호치민에 머무는 것일까.

다른 팀들과 달리 베트남 팀은 첫 한 달 동안 아침 8시 30분부터 5시까지 언어를 배우는데 초점을 맞춘다. 활동 기간의 1/5을 언어를 배우는데 할애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현지어를 먼저 배우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에 자부심을 가진 베트남 사람들은, 외국인이 그들의 언어를 할 때 더 반기고 친근하게 대한다.

‘누구를 위한 행동인가’, ‘무엇을 하려 하는가’ 에 대해 아직도 만족할만한 답은 찾지 못했지만 다른 생각을 해본다. 베트남 팀이 5개월 동안 호치민에 머무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동도 아니고 무엇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동안 잠시 마을을 스쳐지나가는 것이다. 다만, 머무는 동안은 손님이 아닌 친구로서 더불어 살 뿐이다. 언어를 배우는 것 또한 이런 마음의 실천인 것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슬하겠지만, 소소한 일상을 함께 보내고 싶은 이 마음이 자기기만과 과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신병철 기자 jumptothehigh@daum.net

**HIT** 아시아 날라리 호치민에 뜨다 - 2p

**HOT** 베트남팀 밀착취재 그들의 한 달 - 3p

<신짜오 베트남> 그들에게 무슨일이? - 3p

**충격고백!!**  
그렇고 그런사이 - 4p

☆★신짜오 니우스★☆ 후기를 보내주세요!!

“주관적인” 선정을 통해 베트남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수 땀은 예쁜 팔찌를 보내 드립니다. sgsm23@gmail.com

※편집총괄  
심성규, 유지향

짜오: 짜순아 베트남에는 오토바이 매연 때문에 마스크가 꼭 필요하단다. 그래서 널 위해 준비했어 짜잔!  
짜순: 역시 짜오 뿐이야! 고마워!

(베트남 도착)

짜오: 짜순아 우리의 기관지는 소중한니까 한국에서 사온 마스크를 착용하자.  
짜순: 그래 그래^^



(마스크 착용 30초 후)  
짜오: 헉헉::  
짜순: 헉헉::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마스크를



## 우리 홀로 호치민에

3월 7일 토요일, 코디 안(Anh)의 사정으로 아띠들이 그들만의 시티투어를 떠난다. 지난주에 단 한번 갔던 기억과 손에 쥘 지도가 그들의 유일한 안내자이다.

서로의 손을 붙든 채 오토바이 행렬 속을 뚫고 지나간다. 가방을 부들켜 안고 멈추지 않는 버스에 뛰어오른다. 낯선 거리를 눈으로 더듬으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다. 신경은 바짝 곤두서 있다. 손짓, 발짓으로 물어물어 호치민의 대표 명소인 중앙 우체국에 도착한다. 편지를 부치고 집에 안부 전화를 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근처 공원에서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불쑥 다가온다. 매거진 연합 동아리라며, 매거진에 실기 위한 짧은 인터뷰를 요청한다.



“베트남의 첫인상은 어때요?”

“오토바이가 무섭고, 길이 혼잡하지만 어딜 가나 사람들이 친절하게 웃어줘요.”(신병철, 24)

“먼저 한국어로 인사하며 다가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유지향, 23)

짧은 인터뷰 후,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진다. 그 후 저녁까지 다이아몬드 백화점, 성당, 아트 갤러리 등을 구경한다. 그리고 마지막 관건이었던 돌아가는 버스도 무사히 탑승한다.

“갓 자양 조우 어이!(기사님 내려주세요)” 외치지 않으면 내릴 정류장을 그냥 지나간다.

이 경험을 통해 신입 아띠들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하며, 부담 없이 먼저 다가와 준다. 그리고 낯선 상황에서는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을 맡는다. 병철 단원과 주리 단원은 앞장서서 팀원들을 이끌고, 지향 단원은 현지인들에게 길을 묻는다. 마지막으로 성규 단원은 뒤에서 힘들어하는 팀원들을 챙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일들을 자연스레 찾아간다.

아띠들만의 나들이는 힘들고 어설프지만, 또한 즐겁고 뿌듯했다.



김민주 기자 wansheong@nate.com

### 이달의 베트남어

A : Chào chi. Chi đã ăn cơm chưa?

짜오 찌. 찌 다 안 껌 찌아?

안녕! 밥은 먹었어?

B : Chưa, Chi chưa ăn cơm.

찌어, 찌 찌어 안 껌.

아니, 아직 안 먹었어.

A : đi ăn cơm!!

디 안 껌!

그럼 밥 먹으러 가자!

### 웃으면 복이 와요 ☺

심: 심성규 단원의 베이비 파우더는

성: 성공적인 준비물

규: 규온~ (good~)

이: 이것 보세요

주: 주리의 카톡사진

리: 리(이)게 누구야???

베: 베트남은

트: 트러블 메이커

남: 남자들이 너무 잘생겨서



## 베트남에서 만난 가족

다른 학교, 다른 지역, 다른 성장과정, 다른 생각, 다른 지원동기... 다른 것 투성인 5명이 호치민이라는 한 공간에 같이 모였다. 3월 보고서에 담은 내용으로 무엇을 쓰면 좋을지 고민이 생각해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무엇보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팀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내가 이 글에 쓰고 싶은 주제는 우리 팀 5명 그리고 그 팀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4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우리 베트남 팀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신병철 단원은 다른 팀원보다 행동이 빠르고, 어떤 일을 할 때 결정력이 있어서 다른 팀원들을 잘 이끌어 준다. 이주리 단원은 천의 표정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엄마 같은 따듯함으로 다른 팀원을 잘 감싸준다. 심성규 단원은 우리 베트남 팀의 맏형으로서, 맏형의 연륜으로 다른 팀원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고, 그것과 더불어 맏형이 아닌 동생 같은 편안함을 준다. 심성규 단원은 특히 베트남팀 맥가이버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 없어서 안 되는 감사함을 느낀다. 김민주 단원은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팀 내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더 유쾌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나, 유지향 단원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중간 어디쯤에 있다. 완전한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아니고, 행동이 밍 빠르지도 않다. 평소에 나는 어떤 것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글을 쓰기 전에 우리 팀과 팀 내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봤다. 팀 내에서 나의 역할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애매모호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데, 살짝 긍정적인 태도로 조금 더 넓고 깊게 생각해 봤다. 행동이 빠른 사람들과 행동이 느린 사람들의 사이에 내가 있다. 분위기 메이커인 김민주 단원과 심성규 단원의 개그에 함께 웃는다. 다른 팀원을 감싸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주리 단원에게 감싸 안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팀에서 내 역할은 뚜렷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5명이 하나가 되어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사용한 '어중간하다' 는 어감이 썩 좋지 않지만 나는 우리 팀에서 어중간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나의 이런 어중간한 역할이 나는 참 좋다.



유지향 기자 youji0621@naver.com



## ☆☆이달의 사진☆☆



-문화 교류의 밤 "태권!"-



-아슬아슬 버스타러 가는길-



-피로엔 바카스 더위엔 ca phe sua da!-

## 베트남어 공부 도움주신 분



Anh

친 화 령:★★★★☆  
카리스마:★★★★☆  
페이스북:★★★★☆



Thinh

중 국 어:★★★★☆  
대인관계:★★★★☆  
선물공세:★★★★☆



Duyen

스마일:★★★★☆  
부끄럼:★★★★☆  
스타일:★★★★☆



Thien

준비성:★★★★☆  
귀염성:★★★★☆  
한국어:★★★★☆



An

티칭스킬:★★★★☆  
숙소방문:★★★★☆  
페이스북:☆☆☆☆☆